

한국불교 승직제도 고찰 미래의 승가상 조명

삼국시대에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가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총흥과 쇠퇴를 거듭해 온 가운데 승직제도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고찰한 '한국불교 승직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7일 중앙승가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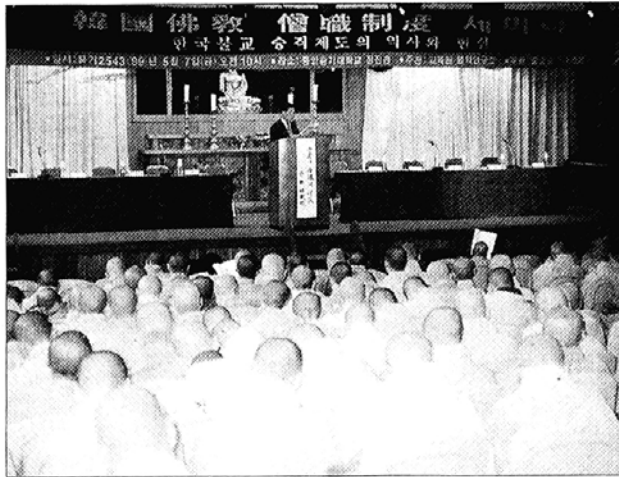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연스님) 불학연구소(소장 도원스님)는 역사 속에 나타난 승직제도 고찰을 통하여 현재의 승가제도와 미래를 재검토하고 미래의 승가상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계종 교육원-불학연구 7일 세미나

■삼국·통일신라 시대 승직제도
김영대 교수(동국대)는 고려의 승통제, 백제에서의 승정제도와 신라시대의 승관직이 통일전후를 통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짚었다. 김 교수는 "고구려의 승직제도가 승통제였다는 사실은 부유한 승직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며 신라에 전해졌을 때 고구려의 해탈을 승통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백제의 승정제도는 백제에 불교를 전해준 중국 남조의 승관제도와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의 승단 통제 기구에서 유추했다. 신라의 경우 교단내적인 승직인 국통(國統)과 도유나상(都維那) 및 대도유나(大都維那)와 교단외적인 승관직이었던 대서성(大書省)을 구분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통 등 승직제도는 통일 후에도 이어졌는데 통일신라에서는 9주(州)를 두면서 각 주마다 한명의 주통(州統)을 두었고 또 18명의 군통(郡統)을 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고려의 승직과 승정
허홍식 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승직은 승에게 부여된 직책이고 승정(僧正)은 이를 주관하는 임명권으로 사용했다"며 "승직과 승정은 스님의 자격을 부여하는 고시제도인 승과(僧科)와 승과의 합격과 이력(履歷)에 따라 지위의 단계별 상승을 의미하는 승계(僧階)와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의 승정제는 종파와 제도적 뒷받침을 토대로 관료제의 일부로서 운영된 것이 커다란 특색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의 승직제도
이봉춘 교수(동국대)는 "승직제도는 기본적으로 승려와 교단의 활동을 국가가 행정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 불교 교단의 자체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불교정책을 위한 국가의 세속적 목적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조선의 승직제도는 배불정책으로 인해 그 전기에 이미 대폭적인 축소의 단계를 거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개최한 '한국불교 승직제도' 세미나.

임진란 이후 전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종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형태로 승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의 승직제도의 성격은 불교와 국가의 공적 매개체이자 국가의 세속성 및 비교단성이 눈에 띈다. 또 도총제 등의 승직이 조선 중기 이후 불교교단의 유지 존속에 외피(外皮) 구실을 했었는데 나중에 충성이 승통 등이 합류로 남발되는 상황이 오는 등 승직의 권위와 의미가 쇠퇴했다"고 밝혔다.

■한국현대 승직제도와 규범
정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종현과 청규로 귀결되는 한국 현대 승

직제도와 규범은 소임자에 대한 권한 부여 유무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점은 인식함에 따라 종무원의 직무에 부여되는 직권은 그 본질과 역할에 더욱 선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진화할수록 다양화되면서 승려의 직무도 범위가 넓어지는데 승직은 현실업무를 처리하는 직제일 뿐 아니라 불교의 근본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승직 제도와 운용에는 새롭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무학스님 폼하와 비난 유교세력 고의적 악평"

강석근씨 '삼대화상 학술회' 서 주장

"무학전승은 '탄생과 관련된 무학이야기', '풍수가(風水家)로서의 무학이야기' '도선(道詔)과 관련된 무학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전승을 통해 볼 때 무학은 유교세력의 조직적인 배척과 질시 속에서 수도승의 본분을 지키면서 무너져가는 불교의 교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고뇌하고 노력하며 법등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진정한 스님이었다."

회암사에서 1일 개최된 삼대화상 추모 학술발표회에서 강석근씨(동국대 강사)는 '무학(無學)전승의 특징과 그의 미'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씨는 "무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극단적인 칭송과 비난의 양상을 띤다"며 "무학은 태조의 절대적인 존경과 칭송을 받았으며 불교적인 측면에서 철저한 수행승이라 불렀고 역사와 지리를 통찰하는 예지력과 풍수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신승이라고도 불리어졌다"고 지적했다. 현대에 와서는 국사봉(國師峯)의 신격(神格)으로까지 경배됐다. "무학을 비난한 이들은 정치적 관점을 달리하는 사관들과 태종 이방원"이라고 지적한 강씨는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사관들은 무학이 왕자로서 행한 첫 실패를 두고 종지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며 철저하게 비난했고 태종은 무학이 득도한 경험도 없다고 치욕적인 악평을 퍼부었는데 이는 태종과 사관에 의한 고의적인 '무학축이기'라고 강조했다.

회암사는 해마다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을 기리는 추모 대례제를 지내왔는데 학술발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학술발표회 기념 삼대화상 연구논문집 <지공·나옹·무학화상>도 발간됐다.

논문집 기사 부다피아에서 보세오

장경연구 학술세미나 일정 확정 '비판불교 비판적 검토' 세미나 6번 심층탐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29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6회에 걸쳐 동국대 90주년기념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비판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학자들을 초청 세미나를 통해 비판불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11월20일

에 열린 6차 세미나에는 '여래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해 학계에 반향을 일으킨 마츠모토 시로 교수 초청 강연이 마련되어 있다.

비판불교 세미나는 △5월29일-비판불교의 이론적 좌표(심재관), 비판불교가 제시하는 형이상학과 철학적 원리(정성철, 홍성기) △7월10일-비판불교의 선불교 이해에 대한 검토(김영옥, 김호규) △9월18일-비판불교의 여래장과 본각사상 이해에 대한 검토(최정규), 비판불교의 인도철학 이해에 대한 검토(이은덕) △10월16일-비판불교의 방법론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 검토(소홍철, 김옥선) △11월20일-마츠모토 시로 교수 초청강연회 및 집단토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진심직설의 진심은 본래심"

이창구씨 '구산논집'에 논문 발표

"선수행은 본질과 실존 사이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본질이란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心即佛)라는 것이며, 실존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한다. 본질과 실존이 합일되는 체계가 바로 선수행의 기본 구조인데 지놈의 선사상 역시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구산장학회가 펴낸 <구산논집> 제3집에서 이창구씨(전북대 강사)는 '진심직설'을 통해서 본 진심과 오수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진심직설의 진심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마음으로 상대적인 것이 초월되어 있는 본래심(本來心)이다.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 선과 악 등 대립적인 것이 초월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각종 망상에 이끌려 생활한다. 본래심과 중생심이 이원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중구조를 타파한 상태가 바로 깨침(頓悟), 즉 본질과 실존이 합일되는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씨는 "(진심직설)에서는 돈을 진심에 대한 바른 믿음(真心正信)으로 표현했다"며 "깨치기 이전에 쌓였던 습기로 인해서 실재와 완전합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위해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술단신

불문연구 봉축기념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13일 오전10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정배 교수(동국대)의 발제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교단-암도스님 △수행-권탄 스님 △북지-혜도스님 △포교-성타 스님 등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 권기종 교수(동국대) 중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이해승 팀장(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 최종석 연구원(불교문화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Current Perspectives Tibetan Women's Association

Tibetan Women's Association
Bhadracharya Road
P.O. Maitreya Gangi 178 219 Dharamsala, District Kangra 178 219 India
Tel: 091-1892-0207
Fax: 091-1892-0214
e-mail: twa@tibet.com

INTRODUCTION
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TWA) was founded on March 12, 1984 in Tibet when the women of Lhasa gathered together in their thousands to protest against the illegal occupation of their homeland by Chinese troops. At the Potala Palace, many women suffered torture at the hands of the Chinese troops. They were arrested, mistreated, tortured and beaten without trial.

TWA was officially registered in 1988 by Tibetan women in exile and currently has 27 branches in India and Nepal. It works to help Tibetan women who have lost their homes and to help the women and children of Tibet.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여성협회

티벳의 종교·문화 지킴이 역할

티벳 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이하 TWA)는 1984년 4월 12일 티벳 라사에서 중국의 티벳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명의 티벳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티벳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아만적인 취급을 받았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회·지회를 두고 있다.

TWA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들의 정체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티벳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설립 목적으로는 티벳과 망명중이 있는 티벳 여성들의 사회·경제·정치적 권한 획득 △교육·문화·언어·전통의 보전과 이해 증진 △후원회를 통해 경제적 으로 불리한 가족·결혼가정 어린이·비구니 스님·장애인·노약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전개 △경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활동 전개 △가정계획을 위해 티벳 여성들이 적절한 건강보호 및 어린이 보호와 교육적 정보에 대한 접근 보증 △티벳내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도도를 높여 중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티벳 국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일 등이 있다.

1984년 처음으로 세계적인 TWA 총회가 '달람살라'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TWA 본부는 현재 '달람살라'에 있는 '택레오드 간쥬'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 TWA가 안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지원·지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조정하고 투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의 망명지에서 이미 7곳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중 3곳이 TWA로부터 조직관리, 조정 기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TWA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복지 부분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티벳·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며, 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티벳의 독립을 위해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TWA에서는 보다 열성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망명지에서의 그들의 용감성과 결단력을 실현시키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TWA에서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www.tibet.com/Women/twa.html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계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 각권 21,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슬프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선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짓받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이렇듯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문은 장영자, 장진명 목사, 최 소파가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절친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다면 인연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전2권 | 신국판 | 각권 21,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